

“소주 1병 6000원 시대... 한잔도 힘들겠네”

4월부터 맥주 세금 ㄹ당 30.5원 ↑ 소주 주정가격 상승에 인상 요인 지역 일부선 이미 6000원에 판매 작년 출고가 인상, 주류업계 고민

Other Menu	
주류 및 음료	
경주법주 (200ml 원컨)	5,000
소주 (참이슬,진로,처음처럼,잎새주)	6,000
맥주 (카스,테라,한맥)	6,000
보해소주	6,800
복분자	22,000
청하	7,000
음료 (콜라,제로콜라,사이다,환타)	2,000
토닉워터	2,000
진저에일	2,000
레몬 슬라이스	2,000
별빛청하	7,000

“상무지구나 첨단 등 광주에서도 식당이나 술집들이 변화한 지역에서는 벌써 6000원대 소주가 종종 보입니다. 이제는 친구한테 소주 한 잔 가볍게 하자는 말도 못 꺼낼 것 같아요.”

지난 19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인근에서 저녁식사 중 반주로 소주를 곁들이려고 했던 A씨는 얼마 전까지 5000원이었던 소주 가격이 6000원으로 오른 것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주 가격이 언제부터 올랐냐고 묻자 업주는 물가가 너무 올라서 버티고 버티다 최근 주류 가격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소주와 맥주 등 ‘서민 술’로 꼽혔던 주류가격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으로 또

지난 19일 광주 첨단에 위치한 한 술집 메뉴판의 소주, 맥주 가격이 6000원으로 수 정돼 있다.

한 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맥주 주세와 소주의 주정 등 원가비용이 함께 상승하면서 주류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소

주와 맥주의 출고가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와 주류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지난해보다 ㄹ당 30.5원 올라 885.7원으로 책정된다. 지난해 ㄹ당 20.8원 오른 것보다 세금 인상 폭이 더 커진 것이다.

이와 함께 제조 과정에서의 원부자재와 전기료 등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세금 인상 요인까지 더해져 맥주 출고가가 또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소주의 경우 주세 인상 품목은 아니지만, 주 원재료인 주정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역시 출고가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

소주는 주정(에탄올)에 물과 감미료를 섞어 만들어지는데, 업계에 따르면 10여 개가량의 주정 회사가 공급하는 주정을 국내에서 독점 유통하는 형식으로, 지난해 주정 가격은 7.8% 상승했다. 이와 함

께 제병 업체의 소주병 공급 가격도 병당 180원에서 220원으로 20% 넘게 오르며 출고가 인상이 불가피했다.

지난해 3월 하이트진로가 ‘진로’ 소주와 ‘참이슬 후레쉬’, ‘참이슬 오리지널’의 공장 출고가격을 7.9% 인상한데 이어 무학은 ‘좋은데이’와 ‘화이트’의 출고가를 1163.4원으로 평균 8.84% 인상했으며 보해양조는 ‘잎새주’, ‘여수밤바다’, ‘복받은바라다’ 등의 출고가를 평균 14.6% 인상했다.

한라산소주도 ‘한라산21’과 ‘한라산순한17’ 등 주요 소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8%가량 인상했으며 롯데칠성음료 역시 처음처럼 병제품 7.7%, ‘청하’와 ‘수북’ 등 청주 제품은 5~7%가량 출고가를 올렸다.

이처럼 소주의 경우 지난해 1병 출고가는 85원가량 올랐으며 마트와 편의점 등의 판매 가격은 100~150원가량 상승했고 오비맥주와 하이트진은 맥주 출고

역시 평균 1.36% 올랐다.

이에 식당이나 술집 등에서는 4000원 가량이었던 소주, 맥주 평균 가격이 지난해 4500원에서 5000원으로 상승했지만, 올해는 일부 업장에서만 볼 수 있었던 ‘소주 6000원’, ‘맥주 8000원’이 평균 가격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지난해 이미 한 차례 소주와 맥주 출고가를 3~6년 만에 일제히 인상한 주류업계의 고민도 큰 것으로 보인다. 소주와 맥주는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반응이 민감한 품목으로 업계 입장에서도 2년 연속 출고가를 올리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분위기다.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 등 주류업체는 아직까지 올해 출고가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상황이며 롯데칠성음료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맥주 출고가를 올린 만큼 올해 추가 인상은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글·사진=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대형마트, 신학기 맞이 할인 행사 ‘풍성’

책상·가구·노트북·등교 용품 등 ‘가성비’ 초점... 최대 40% 할인

대형마트 등 유통업계가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용 가전·가구의 가성비 기획상품을 선보이고 보급형 제품 물량을 마련하는 등 할인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내달 1일까지 신학기 가구 170여종을 최대 40% 할인하고 노트북 등 디지털가전 행사에 나선다.

가성비 가구 브랜드 데코라인은 할인폭을 기존보다 키워 학생가구를 최대 40% 할인하고, 책상·수납장·사무용 의자 전품목을 최대 20% 할인한다.

디지털가전에서는 삼성과 LG 인기 노트북을 행사상품으로 준비해 가격 할인과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증정하며 최대 28%의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원 초반대의 다양한 보급형 노트북에도 최대 20% 프로모션 혜택을 적용한다.

신학기 문완구와 식기류 행사도 동시에

진행해 캐릭터 아동가방과 실내용화는 각각 2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받을 수 있고, 3M 문구 전품목을 대상으로 1만원 이상 결제 시 4000원 상품권을 증정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산리오 캐릭터즈, 포켓몬스터, 캐치미핑 등 인기 캐릭터 아동 식기 160여개 품목도 최대 30% 할인한다.

홈플러스는 28일까지 ‘위풍당당 새출발’ 기획전을 개최하고 새 학기 등교 필수템부터 아동 패션·잡화, 봄맞이 가전까지 새출발에 필요한 다양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다.

새 학기 등교 필수템인 문구류는 균일가로 판매하고, 구매 금액별 상품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개학 필수템인 ‘프리즘 LED 학습 스탠드’ 4종은 최대 40%, ‘나이키’ 가방 전 품목은 30% 할인가로 선보이며 실내용·슬리퍼는 2개 이상 구매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락앤락·글라스락 보온병과 텀블러 20여종은 최대 50% 할인가에 내놓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에서 신학기 맞이 가전·가구 기획상품을 선보이고 할인 행사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에서 ‘위풍당당 새출발’ 기획전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 홈플러스 제공

고 ‘포켓몬스터’, ‘미피’, ‘시나모롤&쿠로미’ 등 인기 캐릭터 식기 전 품목은 20% 할인가로 판매한다.

개학을 준비하는 아동 고객들을 위한

패션·잡화 상품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홈플러스 패션 PB 브랜드 ‘F2F’의 아동 봄 의류 전 품목과 아동 캐릭터 이너웨어 상품은 2개 이상 구매 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여성 주니어 이너웨어와 아동 양말은 2개 이상 구매 시 각각 30%,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곽지혜 기자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전문기업/전기공사업

태양광 발전소 분양·매매!!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 시공, 인허가 토탈컨설팅!!
- ✓ 안정된 연금식 노후 보장
- ✓ 맞춤형 발전소 가능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태양광발전소 시공/유지/보수관리

문암 (주)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062)714-3471 FAX:062)714-3472